

중학교 수학생재 판별의 쟁점들

방 승 진(아주대 수학과)공

1. 서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재 이론에 입각하여 수학생재의 판별이 이루어진 것은 1996년 민족사관캠프에서 일 것이다. 이 때 수학생재활동이라는 새로운 수학생재 판별 항목이 추가 되었고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상관 관계가 있기도 하고 다른 측면을 측정하기도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수학교구와 퍼즐을 이용한 수학생재캠프가 생겨나고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한편 표준화된 수학생재판별도구는 1996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되어 아직도 과학영재 센터의 수학생재판별에 쓰이고 있다. 1997년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생긴 이래로 각 센터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방법으로 수학생재를 선발하고는 있지만 아직 수학생재교육 주관 교수들의 회동조차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수학생재를 선발하는 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학생재선발에 관한 논문이 간혹 있지만 수학생재선발의 절차에 관한 것이지 수학생재선발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수학생재의 판별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쟁점

- (1) 수학생재 판별에 있어서 수학생재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는가?
- (2) 수학생재판별에서 도외시되는 특별한 유형의 수학생재는 없는가?
- (3) 수학생재판별의 절차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요소는 없는가?
- (4) 바람직하게 수학생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 (5) 새로운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수학생재판별도구는 개발되고 있는가?
- (6) 유관기관끼리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학영재교육센터 간에, 교육청과 센터 간에 ...
- (7) 수학생재판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8) 수학영재판별의 요소에 대한 배점이 합리적인가?
- (9) 수학영재판별의 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10) 수학영재판별 후의 장악력은 어느 정도인가?
- (11) 수학적 문제해결력이나? 수학적 창의성인가?
- (12) 다단계 선발을 하였는가?
- (13) 선발에서 탈락된 학생에 대한 배려는 충분한가?
- (14) 수학영재교육과 연계된 수학영재판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15) 잠재적인 수학영재를 발굴하는 장치가 되어있는가?
- (16) 수학활동이 점수로 감안되어 있는가?
- (17) 전공과목의 전환등 선발에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18) 수학영재판별에 쓰인 문항들이 타당한가?
- (19) 수학경시대회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20) 다른 수학영재판별 절차또는 대회와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 (21) 수학영재판별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3. 결론

우리 나라 전반에 걸쳐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학영재판별의 경우도 결과를 수궁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수학의 경우 수학인증시험등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선발시험을 빼고도 약 34종류의 시험이 있다. 이 많은 시험에서 하나 같이 수학영재를 판별하려고 한다. 너무 수학영재들을 들볶고 있지 않은 지 반성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또, 출제문항의 수집과 보관, 근거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홍원, 김명숙, 송상헌 (1996). 수학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I) - 기초 연구
 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96-26, 한국교육개발원
- 방승진(2000). 수학영재교육 워크샵, 과학특기적성교사연수자료집.
- 방승진(1999), 수학과 영재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방승진(1998), 경기도 중학교 영재캠프 운영사례, 1998년 수학영재교육세미나집,
 한국수학교육학회.
- 조석희, 오영주, 김홍원, 박경숙 (1996). 민족사관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체제 개
 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